

치과위생사의 해외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자혜 · 김영진¹ · 노희진²영동대학교 치위생학과 · ¹신구대학교 치위생과 · ²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Intention of overseas employment in Korean dental hygienists

Ja-Hea Yoo · Young-Jin Kim¹ · Hie-Jin Noh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Youngdong University ·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hingu College ·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angwon National University**Received** : 7 August, 2013
Revised : 11 November, 2013
Accepted : 3 December, 2013**Corresponding Author**

Hie-Jin Noh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Health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346 Hwangjo-gil, Dogyee-up
Samcheok, Gangwondo, 245-905 Korea.
Tel : +81-33-540-3392
+82-10-5607-7947
Fax : +82-33-540-3399
E-mail : nohh@kangwon.ac.kr**ABSTRACT****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intention of overseas employment and job satisfaction by Korean dental hygienists.**Methods** : We conducted a survey of 562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dental clinics nationwid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AS (Version 9.2, SAS Institute, Cary, N.C.) package. χ^2 test was used to deter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ncluding job satisfaction level and intention to work abroad.**Results** : Old aged dental hygienists tended to work in the country rather than abroad ($p < 0.05$). Higher job satisfaction was closely related to working hours, monthly income, social status, and stability of employment ($p < 0.05$). Job satisfaction was concerned with intention to overseas employment. The main purpose of overseas employment included economic benefits (35.99%), self realization (26.75%), and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 (21.66%) in the group of overseas employment ($p < 0.05$). The obstacles to overseas employment were mastery of language proficiency (60.94%) and related information (21.89%) in those who want to work abroad.**Conclusions** :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Korean dental hygienists for overseas employme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working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Key Words** : dental hygienist, intention of overseas employment, job satisfaction**색인** : 직업만족도, 치과위생사, 해외취업의사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위생계가 처해있는 환경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괄목할 만한 성장과 변화를 보이고 있다. 치과의료 서비스의 양적인 공급 확대와 의료 수요의 다양화는 치과의료 분야의 첨단과학화와 질적 성장을 가져왔고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건강에 부여하는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치과위생사는 구강병 예방업무, 공중구강보건 업무, 구강

보건교육 업무 및 치과진료협조 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인력자원이다¹⁾. 최근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는 세계화 열풍이 불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와서는 많은 치위생(학)과 학생들과 치과위생사들이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이민과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대학의 프로그램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거나 졸업 후 해외진출을 위한 이민과 연수 등 다수의 인력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치과위생사의 해외취업에 대한 요구 정도

Copyright©2013 b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본 연구는 2012년도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며,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도 부족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치과 위생사의 해외취업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는 2011년도 오²⁾의 '치위생과, 간호과 학생의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와 2009년도 이³⁾의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치과위생사의 인지도 조사 연구'를 비롯하여 2006년 김⁴⁾의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과 만족도 및 해외취업에 관한 인식' 등으로 관련 연구가 미비한 현실이다. 지금까지 치과위생사의 해외취업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해외취업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해외로 진출한 선례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위생사와는 달리 2012년 최근까지 간호사나 방사선사, 치기공사 등 보건 의료 인력들의 해외진출 및 취업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해외취업이 가장 활발한 간호사들의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5,12)}. 타 직종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해외취업의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연령, 학력, 결혼여부, 소득 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⁷⁾. 치과위생사의 경우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집단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진 바 없으며, 어떤 부분이 이들의 해외취업의사를 실천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해외취업을 원하는 치과위생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는 치과위생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치과위생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해외취업에 대한 의사와 스스로 판단하는 해외취업의 방해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학교 졸업 후 전국의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13년 2월1일부터 2013년 4월30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포 전에 전화로 동의를 받고 우편과 이메일, 직접 방문을 통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00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이중 설문문에 충실히 답하여 분석에 사용 가능한 설문지가 562(56.2%)부 수거되었는데, 이중 385부는 우편으로, 177부는 이메일로 회수되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치과위생사의 해외취업의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고려되는 일반적 특성과 직업 만족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⁷⁾.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을 20~25세, 26~30세, 31~35세, 36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근무경력은 2년 미만과 2~4년, 5~9년, 그리고 10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직장규모는 치과의원, 치과병원, 대학(종합)병원, 보건소 등으로 구분 하였다. 학력수준은 전문대졸, 학사졸업, 그리고 대학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 562명 중 남성은 1명 이었고 나머지 561명 모두 여성이었기 때문에 성별에 대한 관련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으로는 하루 중 주요업무의 만족도,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수입에 대한 만족도,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만족도, 이직의사, 고용안정성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매우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해외취업에 대한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관심 있음'과 '관심 있음'을 '의사 있음'으로, '보통', '거의 관심 없음', '전혀 관심 없음'을 '의사 없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의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Version 9.2, SAS Institute, Cary, N.C.)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으며,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에 관한 Cronbach's α 값은 0.809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행하였고,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직업만족도와 해외취업의사의 관련성과 해외취업의사와 해외취업에 대한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와 해외취업의사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20~25세(40.57%)와 26~30세(31.49%)가 대부분이었다. 근무기간은 2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30.25%,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28.47%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직장규모는 개인의원이 49.11%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경기지역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60.85%로 가장 많았다. 교육 정도는 65.84%가 전문학사였으며, 28.29%는 학사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562) Unit:N(%), Mean±SD

Characteristics	N	% [¶]	Intention of overseas employment [*]
Age	20~25	228	40.57
	26~30	177	31.49
	31~35	72	12.81
	36≤	85	15.12
Employment period (Years)	<2	107	19.04
	≥2~5)	170	30.25
	≥5~10)	160	28.47
	10≤	125	22.24
Type of workplace	Dental clinic	276	49.11
	Private dental hospital	144	25.62
	General hospital	107	19.04
	Health center	35	6.23
Region of work	Seoul·Gyeonggi-do	342	60.85
	The others [§]	220	39.15
Educational attainment	College degree	370	65.84
	Bachelor's degree	159	28.29
	≤Master' degree	33	5.87
Total	562	100.00	3.46±1.18

* Intention of overseas employment: 5-very interested, 4-interested, 3-normal, 2-little interest, 1-not at all

§ Gangwon-do, chungcheong-do, gyeongsang-do, chonra-do, etc

¶ Column percentage

Table 2. Intention of overseas employment according to dental hygienists' characteristics Unit:N(%)

Characteristics	Intention of overseas employment					p
	N [§]	very interested	interested	normal	little interest	
Age						p<0.0001
20~25	228(40.6)	54(23.7)	113(49.6)	31(13.3)	24(10.5)	6(2.6)
26~30	177(31.5)	26(14.7)	79(44.6)	27(15.3)	34(19.2)	11(6.2)
31~35	72(12.8)	13(18.1)	18(25.0)	13(18.1)	21(29.2)	7(9.7)
36≤	85(15.1)	9(10.6)	18(21.2)	10(11.8)	38(44.7)	10(11.8)
Employment period(years)						p<0.0001
<2	107(19.0)	25(23.4)	51(47.7)	16(15.0)	12(11.2)	3(2.8)
≥2~5)	170(30.3)	37(21.8)	86(50.6)	25(14.7)	18(10.6)	4(2.4)
≥5~10)	160(28.5)	24(15.0)	66(41.3)	21(13.1)	38(23.8)	11(6.9)
10≤	125(22.2)	16(12.8)	25(20.0)	19(15.2)	49(39.2)	16(12.8)
Type of workplace						p<0.9461
Dental clinic	276(49.1)	52(18.8)	110(39.9)	42(15.2)	59(21.4)	13(4.7)
Private dental hospital	144(25.6)	26(18.1)	59(41.0)	19(13.2)	32(22.2)	8(5.6)
General hospital	107(19.0)	19(17.8)	43(40.2)	16(15.0)	20(18.7)	9(8.4)
Health center	35(6.2)	5(14.3)	16(45.7)	4(11.4)	6(17.1)	4(11.4)
Region of work						p<0.5049
Seoul·Gyeonggi-do	342(60.9)	61(17.8)	146(42.7)	47(13.7)	65(19.0)	23(6.7)
The others [§]	220(39.2)	41(18.6)	82(37.3)	34(15.5)	52(23.6)	11(5.0)
Educational attainment						p<0.0889
College degree	370(65.8)	65(17.6)	155(41.9)	51(13.8)	82(22.2)	17(4.6)
Bachelor's degree	159(28.3)	33(20.8)	60(37.7)	28(17.6)	24(15.1)	14(8.8)
≤Master' degree	33(5.9)	4(12.1)	13(39.4)	2(6.1)	1(33.3)	3(9.1)
Total(N%)	562(100.0)	102(18.2)	228(40.6)	81(14.4)	117(20.8)	34(6.1)

* Result of chi-square test

Table 3.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 of overseas employment of dental hygienists Unit:Mean±SD

Characteristics	Intention of overseas employment		
	No(232)	Yes(330)	p-value*
Satisfaction of main business	3,06±0,87	3,32±0,81	0,0003
Satisfaction of office hours	3,07±0,82	2,86±0,87	0,0036
Satisfaction of current income	2,75±0,96	2,27±0,87	0,0001
Satisfaction of social status	2,80±0,81	2,58±0,88	0,0033
Job attitudes	3,41±0,91	2,85±1,07	0,0001
Stability of employment	3,44±0,95	2,78±1,07	0,0001

*Result of t-test

2.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해외취업 의사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해외취업의사의 관련성을 살펴 본 결과,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른 해외취업의사에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해외취업에 대한 의사가 높게 조사되어 20~25세의 경우 73.25%가 '의사 있음'이라고 답한 반면, 36세 이상에서는 68.24%가 '의사 없음'으로 응답하는

등 연령에 따른 해외취업의사에 차이가 있었다($p < 0.05$). 근무기간에 있어서는 2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치과위생사의 72.35%가 '의사 있음'으로 응답하였고, 2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71.03%가 '의사 있음'으로 응답하여 근무기간에 따른 해외취업의사에 유의성을 나타내었다($p < 0.05$) (Table 2).

Table 4. Intention of overseas employment and understanding the overseas employment Unit:N(%)

Characteristics	Intention of overseas employment (%) ¹⁾		
	No(232)	Yes(330)	p-value*
Purpose of overseas employment			0,0001
economic benefits	43(20,09)	113(35,99)	
self realization	63(29,44)	84(26,75)	
acquire advanced technologies	27(12,62)	29(9,24)	
improve the quality of work	42(19,63)	68(21,66)	
the others	39(18,22)	20(6,37)	
Possibility of overseas employment			0,0001
very much	3(1,29)	4(1,21)	
much	21(9,05)	100(30,30)	
normal	82(36,64)	125(37,88)	
almost never	96(41,38)	98(29,70)	
nothing	27(11,64)	3(0,91)	
Preparation of overseas employment			0,0001
very much	0(0)	0(0)	
little	1(0,43)	10(3,03)	
normal	19(8,19)	96(29,09)	
almost never	94(40,52)	173(52,42)	
nothing	118(50,86)	51(15,45)	
Barrier factor of overseas employment			0,0001
lack of language abilities	137(67,82)	181(60,94)	
lack of reside abroad experience	12(5,94)	16(5,39)	
lack of relevant information	15(7,43)	65(21,89)	
economic difficulty	9(4,46)	15(5,05)	
cultural difference	11(5,45)	7(2,36)	
surroundings persuasion difficulty	12(5,94)	6(2,02)	
the others	6(2,97)	7(2,36)	

¹⁾Column percentage

*Chi-square test

3.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와 해외취업의사

치과위생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해외취업의사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관련성이 검토되었는데, 자신이 하루에 수행하는 업무 중 주요업무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해외취업의사에 차이가 검토되었다($p < 0.05$). 해외취업의사가 있는 경우 자신의 주요업무 만족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5$). 그러나 근무시간, 수입, 사회적 지위, 그리고 고용안정성의 경우 해외취업의사가 없는 경우 더욱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 이직의사가 높은 집단의 경우 해외취업의사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4. 해외취업의사와 해외취업에 대한 이해

치과위생사의 해외취업 의사와 해외취업에 대한 이해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관련성이 검토되었는데, 해외취업의사가 있는 집단에서는 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35.99%)으로 해외취업을 고민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자아실현(26.75%), 업무의 질 향상(21.66%) 순으로 나타났다($p < 0.05$). 해외취업 가능성은 '보통'이 37.88%, '많다'가 30.30%로 해외취업의사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검토되었다($p < 0.05$). 해외취업준비는 의사가 있는 경우 '거의 준비되지 않음'이라고 52.42%가 응답하였다. 해외취업방해 요인으로는 어학능력부족이라고 '의사 있음'이 60.94%, '의사 없음'이 67.82%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관련정보부족이라고 21.89% 응답하였다($p < 0.05$)(Table 4).

총괄 및 고안

해외취업은 한 나라의 노동력이 자기나라의 영토를 벗어나 외국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고용되어 일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이민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이민은 항구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데 비하여 해외취업은 한시적인 취업과 영구적인 취업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해외취업은 국제노동 이동(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이라는 말이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근로자의 이동(workers migration) 또는 노동력 수출(labour expor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¹³⁾.

몇 년 전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회전반에 걸쳐 관심사였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양국 면허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이 합의될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으며, 이것은 국내 의료 인력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대해 쿼터제를 적용해서라도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의료인력 수요의 증가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시장개방 논의를 본격화시켜 많은 보건인력 이동의 증가를 더욱 촉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보건 의료서비스 시장개방 문제는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¹⁴⁾.

오늘날 세계화 시대는 국제적인 인구 이동과 다양한 삶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삶의 질을 높여가고자 하는 치과위생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시 된다. 향후 선진국들의 치과위생인력 수요의 증가가 가시화되고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도 해외진출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지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치과위생사의 해외진출 요인을 분석하고 진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 해외취업 정보망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우리나라에 취업되어 있는 치과위생사의 해외취업에 대한 요구 정도를 알아보고, 해외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해외취업의사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치과위생사들의 해외취업의사에 대해서 '의사 있음'이 58.72%, '의사 없음'이 41.28%로 나타났다. 김¹⁵⁾의 연구에서도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도 조사를 하였는데, 해외취업의사는 '있음'이 70.6%, '없음'이 29.4%로 나타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해외취업의사에서는 20~25세의 경우 73.25%가 '의사 있음'이라고 답한 반면, 36세 이상에서 68.24%가 '의사 없음'으로 응답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해외취업에 대한 의사가 높게 조사되었다. 근무기간에 있어서는 2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치과위생사의 72.35%가 '의사 있음'으로 응답하였고, 10년 이상의 경우는 32.80%가 '의사 있음'으로 응답하여 근무기간에 따른 해외취업의사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⁷⁾의 간호사 해외취업의향 연구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근무기간이 적을수록 해외취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⁸⁾의 연구에서도 해외취업을 위해 NCLEX시험을 준비하는 간호사의 연령대 중 25~29세가 3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연령은 해외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13,16)}. 연령이 적은 경우 인적자본 투자로부터 얻는 잠재적인 수익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업 실현 가능성이 적어지고 일을 포기하는데 따른 손실도 크기 때문에 해외취업을 위한 이동이 적어진다고 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해외취업의사의 관련

성에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하는 경우 70% 이상이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우 만족'하는 경우 해외취업에 대하여 72.73%가 '의사 없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에 대한 만족이 긍정적일수록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정¹⁷⁾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업무시간 만족도 및 현재 소득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 하는 경우에도 해외취업의사가 높았다. 이⁷⁾의 연구에서는 연봉이 1,500만원 이하인 간호사의 72.5%가 해외취업을 원한다고 하였으며, 김⁸⁾의 연구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치과위생사로서 사회적 지위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는 경우 해외취업 '의사 없음'이 100% 이었고, 이직의사가 많은 경우 해외취업의사는 85.71%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고용안정성이 '낮다'고 느끼는 경우 82.50%가 해외취업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로 취업을 함으로써 국내에서 받지 못하는 경제적 가치를 보상 받을 수 있고, 사회적 지위의 만족도와 고용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취업의사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유능한 치과위생사들의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근무환경 개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임금개선이 수행되어야 한다.

해외취업에 대한 의사와 해외취업에 대한 이해를 살펴본 결과, 해외취업의 목적으로는 경제적 이득(35.99%)과 자아실현(26.75%)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남¹⁸⁾의 연구인 '해외취업 전망 및 촉구방안'에서 언급했듯이 국가 간 인력 이동에는 물적, 심리적 비용이 드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익이 필요하고, 그 주요수익은 국외에서의 보다 높은 임금과 근로 조건으로 국내치과위생사들이 해외취업을 바라보는 기대심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해외취업 시 어학능력 부족(60.94%)이 진출 요인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남¹⁸⁾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취업을 선호하는 국가로는 캐나다가 30.10%로 1위를 차지하였고, 호주 26.8%, 미국이 21.0%로 각각 2, 3위로 나타나 해외취업을 선호하는 나라는 영어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⁹⁾. 따라서 어학능력 부족은 해외취업의 큰 방해요인이므로 해외취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학능력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정보의 부족(21.89%) 또한 방해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보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해외취업을 목표로 하는 치과위생사는 취업희망국의 치과위생사 면허(등록)를 취득함은 물론 치위생 실무 능력과 언어능력을 갖추므로써 취업에 필요한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고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 해당국에서 요구하는 취업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해외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개선이 필요하며 치과위생

사의 해외취업을 증진시키고 한국 치과위생사의 능력 수준을 향상시키며, 다가오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치과위생사의 해외취업 활성화와 실무 능력, 언어능력 및 문화적 적응력 증진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해외진출 동기와 유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해외진출 경험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련 요인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전국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나 서울·경기지역 치과위생사가 60% 정도를 차지하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 발판의 첫 걸음으로서 새로이 정보를 정리, 구축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따라서 해외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결론

치과위생사의 해외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특성과 해외취업의사와 직업만족도와와의 관련성, 그리고 해외취업에 대한 목적과 해외취업에 대한 이해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해외취업의사의 관련성에서 연령과 근무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취업의사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5$).
2. 치과위생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해외취업의사의 관련성의 경우 주요업무만족도는 해외취업의사와 양의 관련성이 검토되었으나, 근무시간만족도, 수입만족도, 사회적 지위에 대한 만족도, 고용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해외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5$).
3. 해외취업의사가 있는 집단에서 해외취업의 주요목적은 경제적이득(35.99%), 자아성취(26.75%), 업무의질 향상(21.66%) 순으로 응답하였다($p < 0.05$).
4. 해외취업의사가 있는 집단에서 언어(의사소통)문제(60.94%), 정보부족(21.89%)을 해외취업의 가장 큰 방해요인으로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치과위생사들이 해외취업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해외취업에 대한 방해요인은 언어문제와 정보부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치과위생

사람들의 외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구축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Kim JB, Back DI, Shin SC, Kim DG, Park DY, Jin BH. Introduction to dentistry. 6th ed. Seoul: Komoonasa; 2009: 330.
2. Oh HS. A study on dental hygiene and nursing students perception and attitudes about medical market opening. J Korean Soc Dent Hyg 2011; 11(6): 901-11.
3. Lee MH.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opening of health care services[Master's thesis]. Gwangju: Univ. of Chosun, 2009.
4. Kim HJ. Study on the satisfaction with department and the interest in overseas employment in dental hygiene students[Master's thesis]. Iksan: Univ. of Wankwang, 2005.
5. Han EO, Kim BS. Requirements in the overseas employment and domestic connected education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s: refers to student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radiation. Korean Soc Rad Sci 2008; 31(2): 191-8.
6. Sung HK, Hwang JS. A study on the recognition level of satisfaction and overseas employment among students in Dental Technology. J Korean Acad Dent Tech 2009; 31(4): 99-110.
7. Lee EJ.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of migration by hospital nurses in Korea. J Korean Acad Nurs Admin 2010; 16(4): 437-45.
8. Kim HK. Analysis of stress level of Korean registered nurses who are preparing NCLEX-RN[Master's thesis]. Seoul: Univ. of Hanyang, 2009.
9. Kim KS. A basic research to establish the information network of employment in overseas for Korean nurses. J Ansan College 2006; 24: 355-76.
10. Hong KJ, Yun SN, Kang CH. Overseas employment of Korean nurses and their clinical nursing competences. J Korean Nurs 2004; 43(5): 62-82.
11. Kang CH. Overseas employment of Korean nurses and prospect. J Korean Nurs 2003; 42(6): 36-7.
12. Kong ES. The migration and adaptation of Korean nurses to the United States. J Jesus Col of Nurs 1998; 11(1): 39-49.
13. Chio BG. A study on future strategies methodology of the overseas employment program[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 of Myoungi, 2010.
14. Kim HJ.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opening medical market. 2006; 8: 1411-2.
15. Kim WJ. Study on the satisfaction with department and the interest in overseas employment in dental hygiene students[Master's thesis]. Iksan: Univ. of Wonkwang, 2005.
16. Massey DS, Arango J, Hugo G, Kouaouci A.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 Dev Rev 1993; 19(3): 431-66.
17. Jeong HM. Influence of new dental hygienists' job factors and job satisfaction on turn over intention[Master's thesis]. Seoul: Univ. of Kyunghee, 2011.
18. Nam SI. A study on the prospects and improvements of working abroad. Sogang Econ Thesis 1999; 28(2): 109-32.
19. Kim YJ, Noh HJ, Yoo JH. Information on the Korean dental hygienists' overseas employment. Cheonan: Korean Assoc Dent Hyg Prof; 2013: 5.

